2014년 12월 19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월 18일(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www.smba.go.kr

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보 도 자 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 문의 : 중기청 벤처정책과 • 과장 : 김성섭(042-481-4383) • 사무관 : 이정례(042-481-4425)
벤처협회 정책연구팀 • 팀장 : 허영구(02-6331-7060) • 책임연구원: 이미순(02-6331-7062)

벤처기업 양적·질적 모두 쑥쑥 성장

- 중기청·(사)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실태조사 발표('13년말 기준) -

① 벤처기업수 : 29,555개('14.11말)로 3만개 육박

② 평균 매출액 : 68.4억원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

③ 총 매출액 : 198.7조원으로 GDP의 13.9%, 전년(13.1%)대비 0.8%p, 증가하여 새로운 성장의 주역으로 부상

④ 평균 고용 : 24.7명으로 전년(23.7명)대비 4.2% 증가, 일반중기보다 6.3배 이상 높아 일자리 창출의 핵심기업

⑤ 스타벤처탄생 : 벤처천억기업 454개, 1조벤처 8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벤처 63개, 코스닥 상장 718개

* 모뉴엘 제외시, 벤처천억기업은 453개, 1조벤처는 7개

⑥ 영업이익·순이익 : 각각 3.6억원, 2.7억원으로 전년대비 3.7%, 14.7% 증가

⑦ R&D 투자 등 : 매출 대비 R&D 투자 3.2%, 일반 중기(0.7%)의 4.6배, 대기업(1.4%)의 2.3배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포함) 설치 비율 68.9%, 중소제조업(9.7%)의 7배

- 국내 산업재산권 평균 보유 6.7건, 중소제조업(1.0건)의 6.7배

□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올해 실시한 **2013년말 기준 벤처기업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결과**에서 벤처기업은 **양적·질적으로 높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13년말 벤처기업 수**는 **29,135개로 전년(28,193개) 대비 3.3% 증가**하고 **'14.11말 현재 29,555개로 3만개에 육박**하고 있다.

○ 이는 '10.5월 2만개 돌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 벤처기업 수 : '98 : 2,042개 → '10 : 24,645개 → '12 : 28,193개 → '13 : 29,135개 → '14.11 : 29,555개

□ **평균 매출액은 68.4억원으로 전년(62.0억원)대비 증가율**이 **대기업(0.3%), 중소기업(5.6%) 보다 높은 10.2%**로 나타났다.

○ 이들 **벤처기업群 매출액 총합계는 198.7조원**으로 **재계 2번째 그룹 규모**에 해당한다.

* 재계 매출순위(공정위, '14.4) : 삼성(278조원), SK(156조원), 현대차(150조원)

○ 또한 **우리나라 GDP의 13.9%를 차지**하며 전년(13.1%)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군이 **새로운 성장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 평균 **근로자수는 전년(23.7명)대비 4.2% 증가한 24.7명**으로 일반 중소기업 평균고용('12년 3.9명)보다 **6.3배 이상** 높아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들 **벤처기업群** 총 고용인력은 **719,647명**으로 전체 산업체 근로자수('12년 14,891천명)의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기 벤처에서 **질적으로 성장한 벤처기업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13년말 기준 매출 천억원이 넘는 **'벤처천억기업'은** '12년 416개에서 **454개(모뉴엘 제외시 453개)**까지 늘었다.

○ 매출 **1조 달성** 벤처기업은 5개에서 **8개(모뉴엘 제외시 7개)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벤처기업은 61개에서 **63개로 각각 증가**했다.

○ 이외에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집중 육성하는「**월드클래스 300」기업의 74%,「히든챔피언」기업의 67.5%, 「히든스타 500」기업의 68.5%**가 벤처기업이다

○ **벤처출신 코스닥 상장기업은 718개**(전체 71.2%)**로 전년**(712개, 전체 71.0%) **대비 6개나** 늘었다

□ '13년말 벤처기업 **평균 영업이익은 3.6억원, 순이익은 2.7억원**으로 전년('12년 3.4억원, 2.4억원)대비 **각각 3.7%, 14.7% 증가**하였다.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5.6%)대비 감소한 **5.2%, 순이익률은** 전년(3.8%)대비 증가한 **4.0%**로 나타났다.

○ 매출액 영업이익률(5.2%)과 순이익률(4.0%)은 **대기업(4.7%, 2.0%), 중소기업(3.2%, 2.0%) 보다 모두 앞섰다.**

□ 벤처기업은 **총 매출액 중 평균 3.2%를 R&D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0.7%)의 4.6배, 대기업(1.4%)의 2.3배 높은 수준**이다.

○ 또한, 기업부설연구소(56.2%) 또는 연구전담부서(12.7%) 설치 비율은 **68.9%(20,027개)**로 **일반 중소제조업(9.7%) 대비 약 7배 높은** 수치이다.

○ **국내 산업재산권 평균 보유 건수도 6.7건**(국외 0.5건 별도)에 달해 **일반 중소제조업 대비 6.7배 높은** 수준이다.

□ ‘13년말 벤처기업의 **평균업력은 9.0년**으로 나타났고, **’13년 신규확인 벤처기업 평균업력은 4.2년**으로 전년(4.3년) 대비 **0.1년 감축**됐다.

○ **CEO 연령대는 40대가 4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가 30.5%, 30대 이하가 19.0%로 많았다.

□ 벤처기업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영상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거래의 **‘불공정 경험률’과 ‘심각성 정도’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밴더 거래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밖에도 벤처기업은 **자금, 기술 사업화, 국내판로개척, 필요인력 확보 및 유지관리 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소기업청은 금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분야별 현장 애로 등과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 내년도에는 우수 벤처창업자에 대한 벤처·엔젤 투자 등 **벤처창업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힘써

○ **선진국형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가 조기 구축**되어 벤처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2014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결과

I. 실태조사 개요

□ 추진배경

○ '99년부터 매년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정책 자료로 활용

○ '14년의 경우 '13년말 기준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12년 대비 경영 및 고용성과, 기술혁신 실태 등을 조사·분석

□ 조사개요

○ (조사대상) '13년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29,067개(예비벤처 제외) 중 2,098개 유효 표본기업*

* 업종, 고용규모, 지역을 고려한 표본 비례할당, 신뢰도 95%(표본오차 ±1.99%)

○ (조사기간) '13. 5. 20 ~ 11. 10

○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 (조사기관) 벤처기업협회·한국기업데이터

□ 주요 조사내용

○ (기업 일반) 대표자 특성, 인력·조직, 성장단계

○ (재무·경영) 자본·부채·자산,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 (R&D 투자) R&D비율·연구조직, 기술수준·지재권

○ (공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경험, 경영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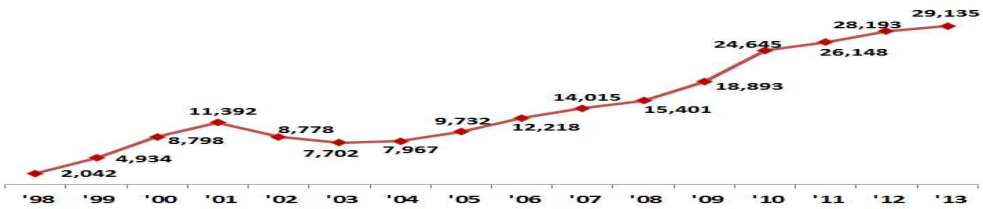
Ⅱ. 조사결과 세부내용

요 약

□ **(벤처기업 수)** ‘13말 29,135개로 벤처확인제도 시행(’98) 이후 **14배 이상 증가**, ‘14.11월말 현재 **29,555개로 3만개에 육박**

* 벤처기업 수 : ‘98 : 2,042개 → ‘10 : 24,645개 → ‘13 : 29,135개 → ‘14.11 : 29,555개

[벤처확인기업 수 추이(개사)]



○ **매출 1,000억원 넘는 벤처기업은 ‘04년 대비 6.7배 증가**(‘04 : 68 → ‘13 : 454), **1조원 벤처기업 8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벤처기업은 63개**

* 모뉴엘 제외시, 벤처천억기업은 453개, 1조벤처는 7개

○ **‘월드클래스300’의 74%**(100개중 74개사), **‘히든챔피언’의 67.5%**(302개중 204개사) **‘히든스타500’의 68.5%** (305개중 209개사) 차지

○ **코스닥 상장기업의 71.2%** (전체 1009개 중 718개)가 벤처기업 출신

□ **(매출 · 수익) 매출액 총합계는 198.7조원**으로 GDP의 **13.9%**를 차지하고 **2번째 재계그룹** 규모 * 재계매출순위 : 삼성(278조원), SK(156조원)

○ **평균매출액은 68.4억원**(전년대비 10.2% 증가)으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5.2%) **및 순이익률**(4.0%)이 여타 **대·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

□ **(고용인력)** 719,647명으로 전체 산업체 근로자수(‘12년 14,891천명)의 **4.8% 차지**

○ **평균근로자 수는 24.7명**(전년대비 4.2% 증가)으로 **일반중소기업**(‘12년 3.9명) **보다 6.3배** 이상 높음

○ ‘14 하반기와 ’15년 중 **63천여명 신규고용 창출** 계획

□ **(기술혁신)** 벤처기업 기술수준은 **18.4%가 세계최고와 동일 수준 또는 그 이상**이며, **국내최고와 동일 수준 또는 그 이상은 46.0%**

* **(R&D 투자)** 매출액 대비 **3.2%로 대기업의 2.3배, 일반중소기업의 4.6배** 높음
* **(연구소 설치) 68.9%**(연구소 56.2%, 연구전담부서 12.7%)로 **중소제조의 7.0배** 높음
* **(산업재산권)** 평균 보유건수는 **6.7건으로 중소제조의 6.7배 이상** 높음

1 벤처기업 수 추이 및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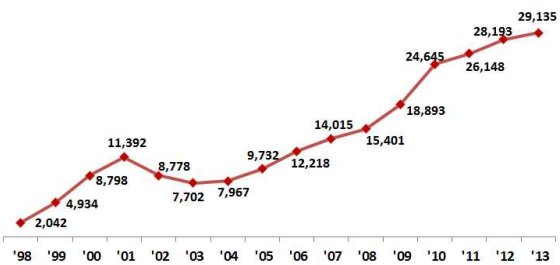
1 **(벤처기업수)** '13년말 벤처기업 수는 **29,135개로 전년**(28,193개) 대비 **3.3% 증가,** '14.11월말 현재 벤처기업 수는 29,555개로 3만개에 육박

○ **'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4배 이상 증가**

○ 1회 이상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수도 69,801개에 달함

* 벤처기업수(개) : '98 : 2,042 → '10 : 24,645 → '13 : 29,135 → '14.11 : 29,555

[벤처확인기업 수 추이(개)]



☞ 벤처수 증가는 모바일 산업 활성화 등에 힘입어 ICT업종 중심으로 벤처기업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와 함께 그간의 다각적인 정부정책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
* 소프트웨어/정보통신 업종 비중 증가 : ('11) 13.1% → ('12) 15.7% → ('13) 16.9%

2 **(업종 분포)** '13년말 8대 업종 기준, **「기계·제조·자동차」 업종(29.0%), 「섬유·(비)금속·음식료」 업종(22.0%), 「소프트웨어개발」 업종(10.7%),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10.5%) 등 순으로 분포**

○ '12년말 대비, **「소프트웨어개발」 업종**(↑0.7%p),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업종이 증가**(↑0.5%p)한 반면,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은 감소**(↓0.8%p)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NS 등의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의 경기 활성화와 청년 창업 활성화 등으로 관련 업종은 증가했으나, 자동차 산업의 경기 둔화 등으로 컴퓨터·반도체 ·전자부품 업종의 벤처확인은 저조

3 **(지역 분포)** 전년대비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07년 이후 수도권 집중도는 완화 추세(↓4.2%p,** '07 : 60.9%→ '13 : 56.7%)

< 지역별 벤처기업 분포(%) >

권 역 별	'07	'08	'09	'10	'11	'12	'13	'07-'12 증감
수도권	60.9	58.7	58.2	57.5	56.6	56.6	56.7	↓ 4.2%p
비수도권	39.1	41.3	41.8	42.5	43.4	43.4	43.3	↑ 4.2%p

2 스타 벤처기업

1 **(스타벤처) 매출 천억원**이 넘는 벤처출신 스타기업은 '05년 조사 이래 **6.7배 증가한 454개사이며, 매출 1조원 벤처기업도 8개** 탄생

* 천억 벤처기업 수 : '04 : 68개 → '11 : 381개 → '12 : 416개→ '13 : 454개
* 1조 벤처기업 수 : '04 : 0개 → '11 : 2개 → '12 : 5개 → '13 : 8개
* '13년 모뉴엘 제외시, 벤처천억기업은 453개, 1조벤처는 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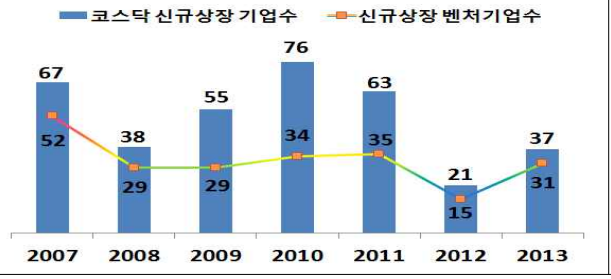
○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스타 벤처기업도 63개사로 전체 130개 중 **48.5%를 차지**

*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벤처기업 : '10 : 48개 → '11 : 53 → '12 : 61 → '13 :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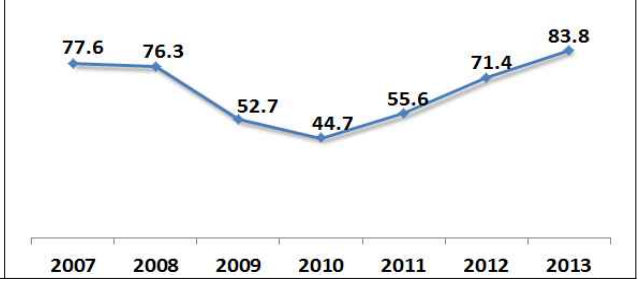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집중 육성하는 **「월드클래스 300」의 74%**('13말, 100개 중 74개사), **「히든챔피언」의 67.5%**('13말, 302개 중 204개사), **「히든스타 500」의 68.5%**('13말, 305개 중 209개사)가 벤처기업

2 **(코스닥상장)** '13년 벤처출신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비중은 83.8%**(전체 37개 중 31개)로 **'1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10: 44.7%→'11: 55.6%→'12: 71.4%→'13: 83.8%)

[코스닥 신규 상장 벤처기업 수(개사)]



[벤처 출신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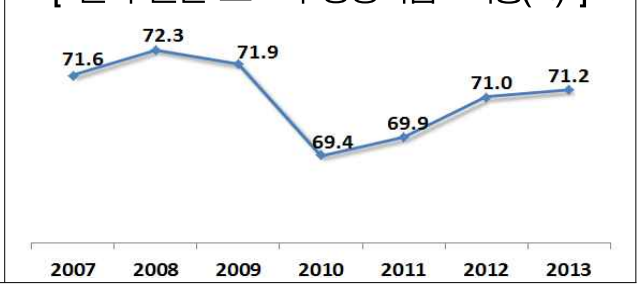


○ 또한 **코스닥상장 기업 중 벤처출신 비중이 71.2%** (718개)로 벤처기업은 **코스닥시장의 핵심 기업군**으로 자리매김

[벤처출신 코스닥 상장 벤처 수(개사)]



[벤처 출신 코스닥 상장기업 비중(%)]



3 벤처기업 매출액 · 수익성

1 **(매출액)** '13년말 기준 벤처기업群 **매출액 총합계는 198.7조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13.9%를 차지**하며, **재계 2번째 그룹 규모***에 해당

* 재계 매출순위(공정위, '14.4) : 삼성(278조원), SK(156조원), 현대차(150조원)

○ **(평균매출액) 68.4억원**으로 **전년대비 10.2%**('12년 62.0억원) **증가, 대기업(0.3%) 및 일반 중소기업(5.6%) 보다 높으며,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우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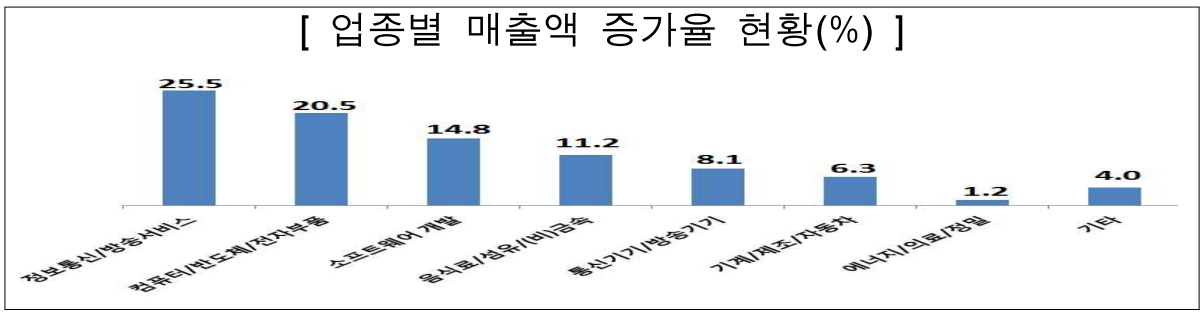
☞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 여파로 벤처 성장성도 전년도(15.8%) 대비 위축되었으나, 스마트폰, SNS 활성화로 반도체,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컴퓨터 업종의 상대적 실적 호조가 높은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기업별 매출액 증가율(%)]



○ **(업종) 모든 업종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업종의 매출액 증가율(25.5%)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현황(%)]



○ **(유형)** 매출액 증가율은 **B2C 기업이 가장 높고(23.6%),** 다음으로 **B2G(13.4%), B2B(9.7%), B2W(1.7%)** 기업 順

* B2B 기업 : 일반중소기업(11.6%), 대기업 납품 1·2차벤더(9.2%), 대기업 및 그룹 소속사(7.4%) 순

○ **(업력) 3년 이하 기업(41.4%)의 성장성이 가장 높고,** 업력이 증가할수록 감소 경향

* (3년 이하) 41.4%, (4-10년 이하) 10.7%, (11-20년 이하) 10.8%, (21년 이상)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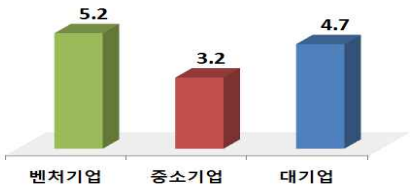
2 **(수익성) 평균 영업이익 3.6억원, 순이익 2.7억원**으로 전년('12년 3.4억원, 2.4억원) 대비 각각 **3.7%, 14.7% 증가**하였다.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5.6%) 대비 감소한 **5.2%, 순이익률은** 전년(3.8%) 대비 증가한 **4.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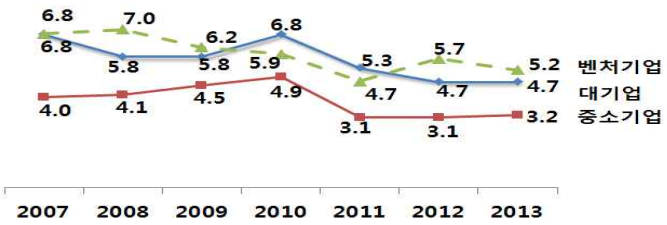
☞ 스마트폰, SNS 열기로 인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기 호조와 원자재 가격 안정 등이 수익성 증가에 영향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5.2%)**은 **대기업(4.7%) 및 중소기업(3.2%)보다 높음**

['1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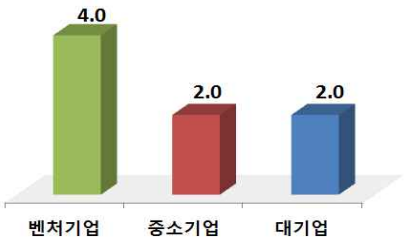


[매출액 영업이익률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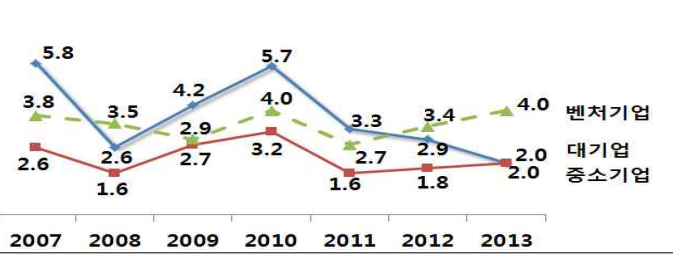


- **매출액 순이익률(4.0%)도 대기업(2.0%) 및 중소기업(2.0%)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남**

['13년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변화 추이(%)]



○ **(업종) 통신기기·방송기기 업종이** 매출액 영업이익률·순이익률이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남

* (영업이익률) 방송서비스(14.3%), 방송기기(9.0%), 전자부품(6.6%)
* (순이익률) 방송서비스(10.9%), 방송기기(6.7%), 정밀(5.1%)

○ **(유형) B2G(7.5%), B2C(5.4%), B2B(4.8%), B2W(4.3%) 순**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남

* (B2B 기업) 일반중소기업(5.1%), 대기업 및 그룹 소속사(4.5%), 대기업 납품 1·2차벤더(4.5%) 순

○ **(업력) 창업 4-10년 이하 성장단계 기업이 가장 높은 매출액 영업이익률(5.9%)과 순이익률(4.9%)**을 올림

* (영업이익률) 3년 이하(5.0%), 4-10년(5.9%), 11-20년(5.6%), 21년 이상(4.0%)
* (순이익률) 3년 이하(3.9%), 4-10년(4.9%), 11-20년(4.2%), 21년 이상(2.5%)

4 벤처기업 고용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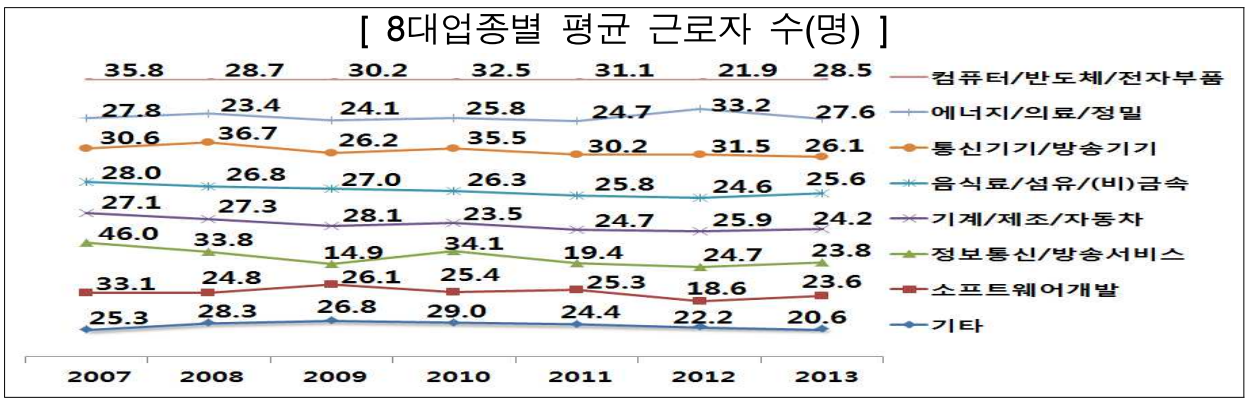
1 **(총고용인력) 719,647명**으로 전체 산업체 근로자수('12년 14,891천명)의 **4.8% 차지**

○ **벤처기업 평균근로자수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24.7명**

- 일반중소기업 평균고용('12년 3.9명)보다 **6.3배 이상 높아 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로 자리매김**

○ **'14년 하반기와 '15년에 벤처기업의 56.2%가 평균 3.9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으로 있어 전체 **6만 3천여명의 신규고용 창출** 예상

2 **(업종별) 소프트웨어 업종**('12 : 22.0명 → '13 : 23.6명, 7.3%p ↑)**과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12 : 26.9명 → '13 : 28.5명, 5.9%p ↑)**이 전년대비 큰 폭 증가**



3 **(유형별) B2C 거래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이 6.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B2G(5.7%), B2B(4.7%), B2W(2.8%) 순

< 매출처 유형별 고용규모 및 증가율 현황(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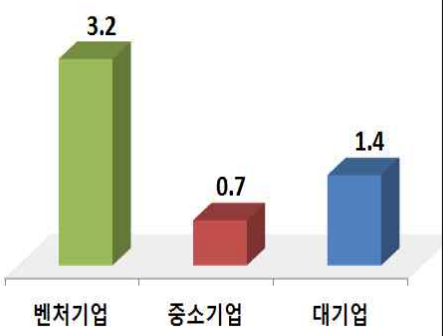
구 분		근로자 수	증가율	
B2B (국내기업)	대기업 (그룹 소속사 포함)	30.9	4.8	4.7
	대기업 납품 1·2차 벤더	29.1	5.7	
	일반중소기업	16.5	4.1	
B2C (국내 소비자)		22.5	**6.1**	
B2G (정부)		21.7	5.7	
B2W (해외)		37.8	**2.8**	

5 벤처기업 기술혁신

◇ 높은 매출액대비 R&D 투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 및 품질 혁신 노력을 보여 주고 있음

□1 **(R&D 투자)** 벤처기업은 3.2%로 일반 중소기업(0.7%)의 4.6배, 대기업(1.4%)의 2.3배

[매출액대비 R&D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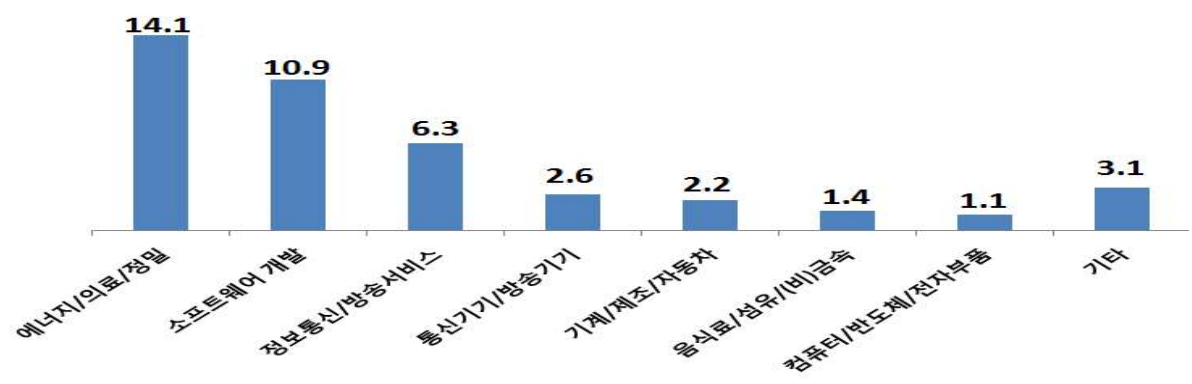


[매출액대비 R&D 비율 추이(%)]

년 도	벤처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07	**4.2**	**1.1**	**2.2**
'08	3.7	1.2	2.0
'09	3.4	1.3	2.2
'10	3.3	1.3	2.1
'11	2.7	0.6	1.1
'12	**2.9**	**0.7**	**1.1**
'13	**3.2**	**0.7**	**1.4**

○ **업종별 매출액대비 R&D 비율은** 에너지·의료·정밀 업종(14.1%), 소프트웨어개발(10.9%), 정보통신·방송서비스(6.3%) 순

[8대 업종별 R&D 투자비율(%)]



2 **(연구소 및 산업재산권)**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56.2%) **또는 연구전담부서**(12.7%) **설치 비율은 68.9%**(20,027개)

* '13년말 기준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16,336개, 연구전담부서 3,691개

○ 일반 중소제조기업의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치 비율 9.7%** ('12년 기준 34,530개) **대비 약 7배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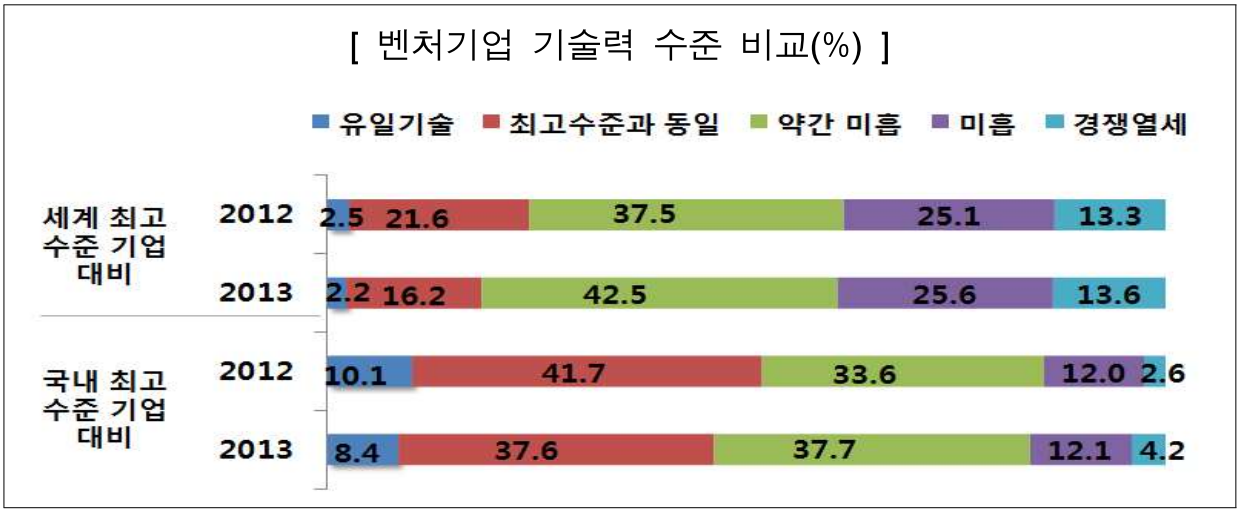
○ **국내 산업재산권 평균 보유 건수도 6.7건**(국외 0.5건 별도)에 달해, **일반 중소제조기업**(1.0건) **대비 6.7배 높은 수준**

< 벤처 - 일반중기의 국내 산업재산권 평균 보유 현황('13년, 건) >

구 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계
벤처기업	3.9	0.7	1.0	1.1	**6.7**
일반중소제조기업	0.3	0.1	0.2	0.4	**1.0**

3 **(기술수준)** 벤처기업이 자체 파악한 주력제품의 기술수준은 **18.4%가 세계 최고와 동일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며, **46.0%가 국내 최고와 동일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나타남

[벤처기업 기술력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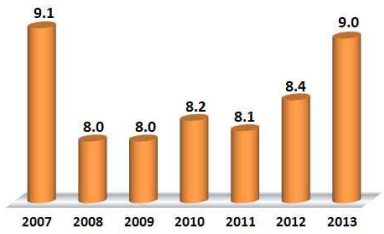
6 벤처기업 업력 및 CEO 연령

1 **(평균업력) '13년말 기준 벤처기업 평균업력은 9.0년으로 '12년말 대비 0.6년 증가**('12 : 8.4년 → '13 : 9.0년)

○ 반면, **'13년 신규확인 벤처기업 평균업력은 4.2년으로 '12년 대비 0.1년 단축**('12 : 4.3년 → '13 : 4.2년, ↓0.1년)

< 벤처기업 평균업력 현황(년, 개사) >

[벤처기업 평균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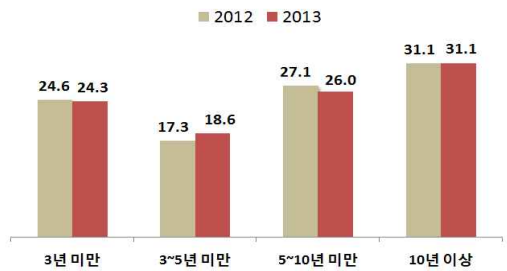
[신규확인 벤처기업의 평균업력]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신규벤처수	5,155	6,126	7,790	6,171	6,352	6,574	6,326
평균업력	**5.9년**	5.7년	5.6년	4.9년	4.5년	**4.3년**	**4.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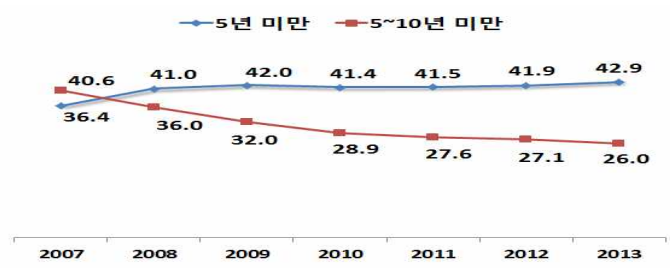
○ **'07년 이후 5년 미만 벤처기업 비중은 꾸준한 증가**를 보여 **'13년 42.9%를 차지**('07 : 36.4% → '12 : 41.9% → '13 : 42.9%)

- 반면, **5~10년 미만 기업 비중은 감소 추세**('07 : 40.6% → '12 : 27.1% → '13 : 26.0%)

[업력별 현황(%)]



[5년 미만 및 5-10년 미만 현황(%)]



2 **(CEO 연령대)** 전년대비 **50·60대는 증가**(각각 ↑1.5%p, ↑0.6%p)하고, **30·40대는 감소**(↓0.4%p, ↓1.6%p)

☞ 50~60대 증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활용한 기술창업 분위기 조성을 유도한 결과로 분석

['12-'13년 CEO 연령대(%)]



7 불공정거래 경험 등 애로사항

1 (불공정 거래 관행 및 심각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거래의 '불공정 경험률'과 '심각성 정도'가 전년대비 증가

○ **'대기업에 납품하는 1·2차벤더'**와 거래 시 불공정거래 경험(17.2%)과 심각성 정도(43.6%)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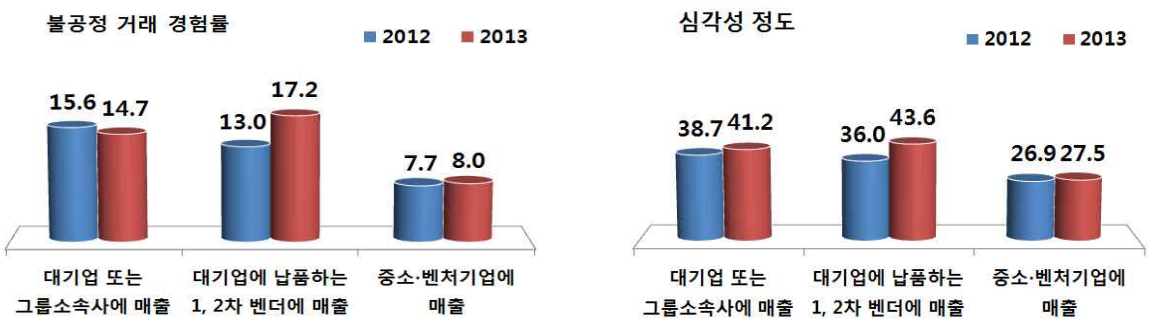
○ **다음으로 '대기업 또는 대기업 그룹 소속사'**가 각각 14.7%, 41.2%로 높음

* 불공정 거래 경험률(%) / 심각성 정도(%) :
('12) 대기업 **15.6 / 38.7**, 대기업 1·2차 벤더 **13.0 / 36.0** →
('13) 대기업 **14.7 / 41.2**, 대기업 1·2차 벤더 **17.2 / 43.6**

☞ 그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으로 대기업의 상생에 대한 인식과 거래 관행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 납품 1,2차 벤더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 **중소·벤처기업 대상 거래**의 불공정 거래 경험률('12 : 7.7% → '13 : 8.0%) 및 심각성 정도('12 : 26.9% → '13 : 27.5%)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

[기업 대상별 거래 시 불공정 거래 경험률 및 심각성(%)]



2 (경영애로) 자금분야(73.9%)가 가장 높고, 기술사업화(61.0%), 국내판로 개척(59.8%), 필요인력확보 및 유지관리(58.6%) 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영애로(중복응답) : ①자금(73.9%), ②기술사업화(61.0%), ③국내판로개척(59.8%), ④필요인력확보 및 유지관리(58.6%)